



HOME > 수행&신행 > 수행&법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① 견디고 참고 기다리며...

呂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10.08 13:08 | ☎ 호수 3687 | 💬 댓글 0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0월8일 함양을 지나 거창으로 향하고 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우려했던 일이다. 150여 명 순례단이 우중 행군을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걷기조 앞과 뒤에 붙은 지원팀이 우비부터 날랐다. 함양 용추 계곡이 있는 인근 캠핑장에서 하루를 보낸 순례단이 이제 막 8일차 일정을 시작한 10월8일. 출발 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순례단 발걸음이 멈춰 섰다.

곧 폭우라도 쏟아질 듯한 흐린 하늘 아래 새벽 어둠 속 차로 옆에 잠시 멈춰 서서 우비를 입는 순례단 얼굴에 일순간 걱정이 일렁인다. 순례단이 우비를 입는 동안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말이 없다. 회주 스님도 우비를 입어야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비가 오면 맞으면 되지 뭐”라는 한 마디 말 뿐이다.

폭우로 온 몸이 젖어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순례단 의중이 읽혔을까. 함양 안의면과 거창 마리면을 넘나드는 고갯길 바래기재를 넘어가는 내내 다행히 흐린 구름이 빗방울을 묶었다. 비가 멈춘 맑은 하늘 아래 순례단은 대대리와 하고리를 무사히 넘었다.

변덕스러운 날씨만큼 순례단을 괴롭히는 건 용변 문제다. 장시간 걸어아하는 순례단에겐 화장실 하나 없는 인도와 자전거길, 차도를 넘나드는 순례길은 단지 불편하기만한 것이 아니라 걷기에도 지장을 준다. 나 혼자 때문에 순례 전체 대중에게 피해를 줄 수 없으니 목이 말라도 목을 축이는 수준에서 물을 마시고 당장 급해도 일단은 참는다.



불교신문TV

더보기 >

짜장에 진심인 사람들.....



짜장에 진심인 사람들... 이들의 정체는? Clas...

포토뉴스



[찰나의 화두] 봉천사와 개미취 꽃



색선별 최신기사

"SNS어
뉴스

불교신문TV

짜장

짜장에 진심인 사

많이 본 기사

- 1 [삼보사찰 천리]
- 2 [삼보사찰 천리]
- 3 [삼보사찰 천리]
- 4 [삼보사찰 천리]
- 5 [삼보사찰 천리]
- 6 [삼보사찰 천리]
- 7 [삼보사찰 천리]
- 8 [삼보사찰 천리]
- 9 "불교계 매도 ?
- 10 관중 없는 비디



문의 / 안내 : 0

대한불교

최신뉴스

- [간강칼럼] <9> 백...
- [동정] 임법스님, 삼...
- [문화사] 함께 했기...
- [찰나의 화두] 봉천...
- [사회복지사 편지] <...
- [원허스님의 아름다...
- [수미산정] 작지만 <...
- [천수천안] 녹색사찰...
- "대학발전이 곧 견학...
- [사설] 개막일 손꼽...



이날은 비구니 스님 그룹이 선두에 섰다.



뒤를 따르는 우바새 그룹.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급히 우비를 행거 입는 스님들.

종단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 국회 앞 1인 ...
전국 해인총림 해인사, 개산 1219주년 역대조...
사회&국제 불교활동가지원기금 '제18회 불교...
인물 [동정] 임법스님, 삼화사 국행수륙대제 ...
대중공사 [문화시] '함께' 했기에 의미가 크다
수행&신행 참선지도사 명상지도사 자격시험 ...
문화 [건강칼럼] <9> 백내장과 녹내장 진단과...
기획&연재 관중 없는 비대면이지만 생명나눔 ...
출판&문학 지율스님 태아영가 천도재 30년 ...
학술&문화재 제2회 운강명상학술상 이영진...
복지&상담 병원진료에 함께 갈 '시니어 돌봄...



법공양 (기획PR)





비가 와도 순례와는 상관없다. 장삼 위 수한 가사에 우비를 덮어 쓰고 걷기 준비를 하는 스님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이끄는 자승스님은 이날 행렬 가운데 서서 순례단 중심을 잡았다.



고갯길을 지나는 순례단.



고갯길이 계속되자 순례단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땀으로 흠뻑 젖은 원돈스님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홍보를 맡고 있는 정오스님을 격려하는 스님들.



더위와 계속된 오르막길로 지친 순례단이 잠시 쉬고 있다.



다리 위를 지나는 순례단.



거창에 들어서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함양에서 거창으로 입성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이날도 장장 약 30km 장거리 걷기 일정이 예정된 상황. 거창군 가조면과 남하면 둔마리를 연결하는 고갯길 살피재를 올라 한참을 걷던 순례단 앞에 반가운 게 보였다. 해인사와 거창군이 순례단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마련한 것. 많은 이들의 도움 끝에 긴 시간 불편을 참던 순례단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마친 후 고갯길을 넘는다.

고갯길을 넘은 순례단을 맞이한 건 따뜻한 도시락이다. 7시간의 행선이 있던 오전 내내 삶은 계란 2개와 바나나 1개로 겨우 허기를 채운 순례단에겐 단비나 다름 없다. 배불리 먹기 보단 조금 부족해도 걷기 딱 좋은 만큼 아침 공양을 마친 순례단에게 순례 막바지를 앞두고 먹는 점심 공양은 기다림 만큼 맛도 좋다.

든든히 배를 채운 천리순례단이 마지막 코스를 남겨두고 다시금 발길을 재촉했다. 걷기 중간 중간 휴식 시간이 될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짓무른 두 발을 쥐어 잡던 백금선 참가자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 순간의 아픔을 참고 걸음을 내딛다 보면 또 저만치 가게 된다”며 “진언을 외며 화두를 들고 가다보면 우리가 길 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이 곧 한국불교 새 길을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무엇 하나 편치만은 않은 순례 생활. 낯선 환경과 마주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겪지 않아도 될 불평과 마주해야하는 순례단의 하루가 또 다시 저물어 간다. 평소 우리네 삶이라면 일기일경(一機一境)에 일희일비(一喜一悲)했을 하루. 힘든일이 있으면 견디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참고, 절망 앞에선 희망을 기다리며 감인대(堪忍待)를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

천리순례단은 이날 함양 대대리에서 거창 동례리까지 약 30km를 걸었다. 현재까지 누적 이동 거리 총196km. 순례 9일차는 거창을 지나 해인사에 들어선다.

거창=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② 순례단 찾은 총무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② 자승스님 실상사 참...
- ▶ [사설] 장엄한 걸음 시작한 삼보사찰 순례
- ▶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지리산 가거든...자승...
- ▶ [영상]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한국불교 중흥...
-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① 함께 걷는 길, 자라...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① 한국불교 새 운동.....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비바람 불어도 꽃갈...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박수와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② “부부 아니고 50년...
-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명감 하나로 밤낮 없이 일...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① 마지막 고비 넘어...
- ▶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 조금만 더 가자...응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① 청매선사 깨달음 얻...
- ▶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 힘들어도 자비의 꽃은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안개 자욱한 섬진강 따...
-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② 사찰 참배하며...무...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② 삼보의 의미를 다시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 가야산에 이르러 해인...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딸과 평생 한번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① 누적 295km...순례...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 발톱이 들리고 물집...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② “우리 모두가 부처...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 대장정 회향...금강계...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광고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건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